

혼술·홈술 증가에...생맥주 프랜차이즈 가장 많이 없어졌다

2019년 기준 광주 161곳·전남 200곳 등 361곳 감소
한식당 94곳·커피 전문점 71곳·편의점 40곳 증가
1곳당 매출액 광주 3억4300만원·전남 3억1600만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한 해 동안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업종은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으로, 점포 361개가 없어지고 종사자 68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당과 커피 전문점, 편의점은 각각 94곳, 71곳, 40곳 늘어나며 여전히 프랜차이즈 창업 인기를 반영했다.

2일 통계청 '2019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 (확정)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지역에는 광주 6234개·전남 6488개 등 1만2722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만2781개 보다는 59개(-0.5%) 줄어든 개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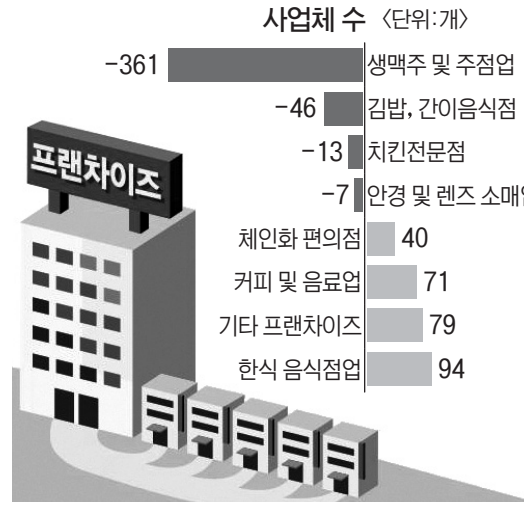
광주는 전년보다 51개(0.8%) 가맹점이 늘었고, 전남은 110개(-1.7%) 감소했다. 전국 가맹점은 21만5188개로, 전년보다 5089(2.4%) 증가했다. 가맹점이 줄어든 사·도는 전남과 대전(-137개) 2

곳이다. 광주·전남에서 1년 사이 가장 많이 문을 닫은 가맹점은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이었다. 주점업 가맹점은 광주 161곳(-28.3%)·전남 200곳(-31.7%) 등 361곳이 감소했다. 이들 가맹점 종사자는 683명(광주 319명·전남 364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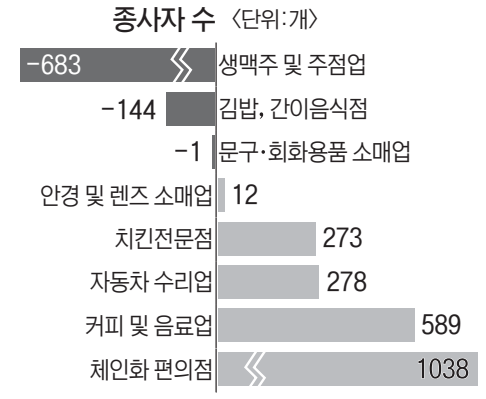
술집에 이어 점포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김밥, 기타 간이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46개), 치킨 전문점(-13개), 안경 및 렌즈 소매업(-7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한 해 동안 94개의 한식 음식점업이 생겨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71개), 체인화 편의점(40개), 두발 미용업(36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16개), 제과점업(15개), 외국식 음식점업(12개), 자동차 전문 수리업(6개) 등도 가맹점이 늘었다.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감



가맹점 사업체 1곳당 매출액은 광주 3억4300만원·전남 3억1600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3억4700만원)을 밑돌았다. 업체당 매출액은 인천이 3억8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서울(3억8200만원), 제주(3억5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에 비해 평균 매출액은 광주는 12.2%



※2019년 기준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광주·전남은 가맹점당 인건비 인상률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19년 기준 가맹점 1곳당 인건비는 광주 4350만원·전남 352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8.2%(670만원), 15.6%(480만원) 올랐다. 이 같은 인상률은 세종(24.2%)에 이어 광주, 경북(15.9%), 전남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11.4%였다.

한편 광주지역 가맹점 1곳당 영업비용은 3억500만원, 매출원가 2억3000만원, 임차료 2300만원, 기타 영업비용 3600만원, 연간 급여액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영업비용 2억8200만원, 매출원가 1억9300만원, 임차료 1300만원, 기타 영업비용 4000만원, 연간 급여액 3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과밀도를 나타내는 인구 1만명당 가맹점 수는 전남이 36.7곳으로 제일 적었다. 광주는 41.8곳으로, 전국 평균(41.7곳)을 조금 넘겼다.

제주 과밀도가 49.9곳으로 가장 심했고, 광주는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만명당 가맹점 수가 많았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12월31일 기준 전국 약 2만50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표본으로 뽑아 지난해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 동안 면접조사를 벌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라진 '졸업·입학 특수' ...광주 안개꽃·장미 등 가격 하락

21개 기관 농가 돕기 나서

연초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졸업·입학 기간 화훼업계 특수가 사라졌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서구 품양동 광주원에 농협 공판장에서 거래된 안개꽃 1단당 평균 가격은 2963원으로, 1년 전(7342원)의 40% 수준에 그쳤다.

장미(스탠다드) 평균 경락가격은 1단당 6663원에서 5846원으로 12.3%(817원) 하락했다.

국화(스탠다드)도 25.5%(-995원) 떨어진 2901원에 팔렸고, 튜립은 22.0%(-1255원) 하락한 4441원에 거래됐다. 카네이션(-33.3%)과 리시안서스(-29.4%)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대목이 왔지만, 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면서 꽃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2-3월에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각종 행사와 기념일이 몰리는데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화훼 거래와 가격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지역본부 등은 이달부터 적극적인 소비 확대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사무실 내 꽃 생활화, 중대형 화훼 장식, 직원 선물 등을 통해 판로가 막힌 화훼류의 소비를 늘린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강형구(왼쪽)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이 지난 1일 송정농협 소속 화훼농가를 찾아 출하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21개 기관은 모두 300만송이를 구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농협이 200만 송이를 구매한다. 지자체별로 자체 소비계획도 세웠다.

광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지역농가 꽃을 무인 판매한다. 오는 8일에는 명절 선물 대신 꽃을 주는 '꽃피는 명절 만들기'와 '1인 1화분 키우기'도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달 초부터 쇼플로 남도장에서 화훼 판매를 시작한다.

화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 출하 포기 등의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재화훼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도 연말

까지 1.5%에서 1.0%로 내린다.

소비 침체,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는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의 저금리 전환 또는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 화훼 관련 회원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차익을 농가를 돕는데 쓴다.

소비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공영홍소품, 화훼 전문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기획 판매 등도 계속 확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진공, 유망 벤처 성장공유형자금 지원

금리 0.5%·최대 6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흥선)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성장공유형자금은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으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다. 다만,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경우에도 창업 7년 미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다. 표면금리는 0.5%, 만기보장금리는 3%, 지원한도는 최대 60억원(지방소재 기업 70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은 표면금리를 0.25%로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흥선 본부장은 "올해는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 및 IR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무역협회, 개별바이어 초청상담 758만 달러 계약성과

전년대비 800% 증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전남도 지원을 받아 시행한 해외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남지역 수출기업 9개사가 총 758만 달러의 계약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개별바이어 초청지원사업은 바이어가 전남 수출기업과 생산시설을 방문하지 못해 최종 수출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바이어 초청비용을 지원해 계약체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식품기업으로 구성된 수혜기업 9개사가 11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달성한 수출계약 758만 달러는 전년대비 800%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환경아래 농수산물에 대한 해외의 수입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바이어 초청을 원활히 한 것이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원에 따라 수출실적이 급상승한 만큼 올해 사업규모도 확대된다. 해당예산이 총 4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증액된 것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저자 이진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한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